

<나의 주말이야기>: 날씨가 ^{이런: 김치랑} 정말 추워서 호~~~~ 불면 입 꼬이
나을 정도로 추웠다. 일요일 아침에 엄마가 날 불렀다.
* 왜라고 물어보았는데 엄마가 김장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.
그래서 * ~~씻고~~ 옷을 갈아 입고 밖으로 나갔는데 지금
입었던 옷이 다 얼어 버린 것처럼 몸이 너무 추웠다.
난 잠시 고민했다. * 왜 하필이면 이 추운 날씨에
김장을 하느니... 차라리 지금이 겨울이면 집에서
보일러 틀고 예불 펴고 곰이나 가스 먹겠다' 라고 생각했다
하지만 어쩔수 없이 엄마와 나는 할머니 집으로
가야만 하는데 할머니 집은 주택이어서
몹시 더 추웠다. * 밖에 나가서 노끈 삶는데
손과 발이 꽁꽁 얼어 버릴 것 같아 싫었다.
그때 할머니가 보일러를 틀어 주셔서 너무
감사했다. ~~그래서~~ 나는 할머니와 엄마 삼촌 이모
계서 배부러 주신 김치와 삼촌 계서 해 주신
보쌈을 함께 먹으니 아삭한 김치와 쫄면
보쌈이 너무 맛있었다. 그래서 우리